

## 제291호(2011. 1. 3)

---

### ■ 건설 경기 동향

- 2011년 국내건설, 토목·주택수주 부진으로 4.5% 감소 전망
- 2011년 부동산 경기, 지역·상품에 따라 차별적 회복세

### ■ 정책·경영

- “건설기업, 안정적 사업구조 정착에 주력해야”
- 2011년 수주환경 및 공공계약제도 정책이슈 진단

### ■ 정보 마당

-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작년보다 둔화 예상

### ■ 연구원 소식

### ■ 건설 논단 : “능동적으로 가치창조하는 건설산업이기를...”

## 2011년 국내건설, 토목·주택수주 부진으로 4.5% 감소 전망

### ■ 2010년 국내 건설수주, 1~10월 간 6.8% 감소

- 2010년 국내 건설수주는 1~10월 간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 공공부분의 위축이 두드러졌으며 주택수주 또한 회복이 부진함.
  - 공공 수주는 1~10월 간 35.0% 감소한 30조 3,111억원을 기록. 2009년에 급증했던 공공토목 수주가 41.3% 급감했으며, 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으로 주택수주도 36.2% 급감
  - 한편, 민간 수주는 전년 동기비 28.2% 증가한 48조 941억원으로 작년보다 양호함.
  - 민간 토목 수주가 20.2% 증가했으며 주택과 비주택 수주 또한 각각 16.2%, 52.6% 증가함. 다만, 민간 수주 중 비중이 제일 큰 주택 수주의 회복이 상대적으로 부진함.
- 2010년 국내 건설수주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주가 위축되었던 지난 2009년보다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연간 실적으로 3년 연속 감소를 기록할 전망

### ■ 2011년에는 토목과 주택수주 부진으로 전년대비 4.5% 감소 예상

- 2011년 국내건설 수주는 2010년 대비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토목수주가 SOC 신규 사업예산 급감, 4대강사업 발주 마무리 등의 영향으로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감소할 전망
  - 주택수주 역시 서울시 공공관리자제 시행의 영향으로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급감해 2010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 다만,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청사건립 공사 발주 증가 영향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호조를 보일 전망

<2010년 건설수주 증감률>

(단위 : 전년 동기비 %)

구 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토목	건축	주택			
				주택	비주택			주택	비주택		
2010. 1/4	-0.5	-12.6	-10.7	-18.2	-25.6	-14.0	14.2	-8.2	19.7	-1.6	52.1
2010. 2/4	0.1	-50.7	-60.7	-16.0	-24.6	-8.0	108.4	148.7	100.1	106.6	93.0
2010. 3/4	26.5	6.5	5.9	7.5	-31.3	43.7	42.3	23.5	48.2	32.3	77.7
2010. 1~10월	-6.8	-35.0	-41.3	-16.6	-36.2	0.8	28.2	20.2	30.3	16.2	52.6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11년 부동산 경기, 지역·상품에 따라 차별적 회복세

## ■ 2010년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거래 감소, 임차수요 증가

-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5%, 전세가격은 6.3% 상승. 토지가격도 0.9% 상승함(전년 말 대비 2010년 11월 말 가격 기준).
  - 전국적으로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수도권은 하락세였고, 거래량은 토지·아파트가 전년 동기 대비 10% 수준에서 감소함.
  - 정부 정책기조도 거래 정상화로 전환(DTI 규제 완화, 양도세 및 취득세 완화 연장)
-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세매매비율 급증
  -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과 주택매매가격 하락 등에 따라 주택 구매를 유보하고 전세 및 월세 등 임차 수요로 남아 있는 수요 다수 발생
  - 2009년 1월 52.3%를 보이던 전국 아파트 전세매매비율이 2010년 11월 현재 56.8%로 4.5%p 상승함. 특히, 수도권 아파트 전세매매비율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 ■ 2011년에는 지역 및 상품에 따라 차별적인 회복세 보일 듯

- 공급지표인 주택 인·허가 및 분양물량 감소.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해소되어 3년만에 10만호 이하로 떨어짐.
- 2011년 주택시장은 장기간 재고 조정, 공급 감소 등에 따른 회복 요인이 존재하나 지역별·상품별로 차별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금융위기 이후 공급 물량 조정에 따른 회복 요인이 존재하나 지역별 상품별 수요 풀림, 재고 조정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시차를 두고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2010년 부동산시장 지표>

구분	가격			거래량		공급물량			미분양주택(호)	ABCP 발행규모(억원)
	주택		토지	거래량		인허가(호)	분양(호)	입주(호)		
	매매	전세		아파트(호)	토지(필지)					
물량				417,736	1,983,331	190,731	240,019	293,877	99,033	123,069
전년대비(%)	1.5	6.3	0.9	-10.8	-9.5	-5.8	-0.5	3.7	-22.7	57.4
기준시점	1~11월		1~11월	1~11월	1~11월	1~10월	1~12월		10월	1~11월
자료	국민은행		온나라포털	국토부	온나라포털	국토부	부동산114(주)		국토부	메리츠증권

주 : 아파트 거래량은 실거래 공개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기준이며 분양물량과 입주물량 중 일부는 예정치임.

건설경기동향 및 전망 TFI

## “건설기업, 안정적 사업구조 정착에 주력해야”

- 2011년 건설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경영 이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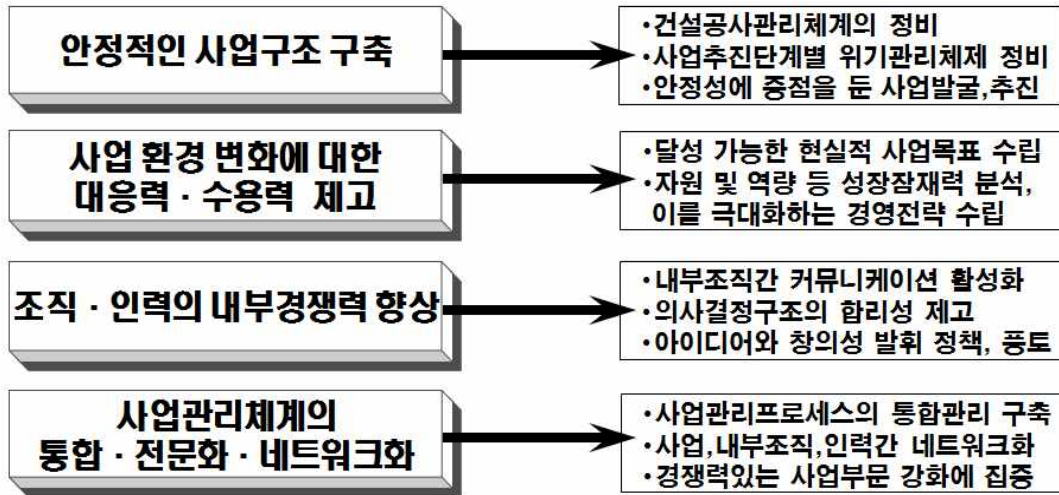
### ■ 2011년 국내 경제 및 건설시장 환경

- 2011년 국내 경제 경제성장률은 2010년 6% 내외에서 4%대로 둔화될 것으로 보임.
- 국내 건설시장은 2010년 마이너스 성장의 건설투자가 2011년에도 회복되기 어렵고, 침체된 주택건설시장도 단기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민간, 공공의 동반 침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세계경제 상황상 해외건설시장도 낙관할 수 없음.
  - 4대강사업의 종료와 도로예산 감축 등 2010년 대비 2.7%의 SOC 예산 감소 영향으로 건설시장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주택 적체 등으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침체되고, 2기 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 계획도 사업 조정이 불가피함.

### ■ 2011년 건설 경영 주요 이슈

- 첫째, 시장 침체에 대응한 안정적 사업구조의 구축
  - 침체 상황에서는 안정성에 중점을 둔 사업구조의 구축이 매우 중요함.
  - 안정적 사업구조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안정적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원가경쟁력과 전사적인 위기관리 체제, 안정적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사업 구조임.
  - 건설공사 관리체계 강화와 사업 추진 단계별로 위기관리체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대한 적응력 및 수용력 제고
  - 그동안 건설기업들은 과거의 성공경험을 고수할 뿐만 아니라, 다소 무리한 확장적 목표 수립을 관행적으로 수행해 왔음.
  - 이러한 관행은 단기 수주목표 지향적 사업전략과 추진을 자극하였고, 결국 수익성 저하에 따른 사업경쟁력 약화 및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의 적응력과 수용력을 저하시켰음.
  - 달성 가능한 사업목표와 이에 따른 내부 성장잠재력과 내·외부 보유 자원 및 사업 역량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수립, 실행해야 함.

<2011년 건설 부문 주요 경영 이슈>



- 셋째, 조직 및 인력의 내부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둔 경영관리
  - 위기 극복과 변화 대응의 실질적 주체는 기업 내부의 조직과 인력임. 단기, 중장기적인 대응의 출발은 건설기업 내부의 조직 및 인력의 경쟁력 향상에 두어야 함.
  - 조직 측면에서는 조직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의사결정구조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함.
  - 인력 측면에서는 상황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유도하기 위해 내·외부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주는 한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 내 정책의 개발과 풍토를 조성해야 함.
- 넷째, 사업관리체계의 통합, 전문화 및 네트워크화
  -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수주에서 시공, 준공에 이르는 과정의 통합적 관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는 사업, 내부조직, 인력 간 공간적, 시간적 네트워크화를 통해 가능함.
  - 자사가 지닌 핵심 사업추진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외부자원(아웃소싱)의 활용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밖에도 다양한 경영이슈들이 등장할 전망이다.
  -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 조직·인력관리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음.

김영덕(연구위원 · ydkim@cerik.re.kr)

## 2011년 수주환경 및 공공계약제도 정책이슈 진단

- 수주 물량 감소 및 입낙찰제도 개선에 따른 부담 가중 우려 -

### ■ 수주 여건 및 전망

- 2011년도 건설산업 수주 환경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전체적으로 공사 수주 물량은 줄어들고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인력과 비용 부담은 증가하며, 가격 경쟁은 심화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임.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11년도 건설경기 전망에 의하면,
  - 국내 건설수주는 작년 대비 4.5% 감소한 112.4조원 규모로 예상됨.
  - 공공건설은 작년보다 4.4% 감소된 41.2조원으로, 민간수주는 4.5% 감소한 71.2조원으로 전망됨.
  - 토목은 9.9% 감소된 38.1조원, 건축은 1.4% 감소된 74.4조원으로 예상되며, 특히 공공 토목은 20% 정도 급감할 것으로 분석되고 주거용 건축도 8.8%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민간주택 분양시장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침체 지속 가능성
  - 정부의 2011년 SOC 예산은 3.2% 감소, 건설투자도 0.3% 감소 전망

### ■ 정부의 공공건설 정책 방향

- 정부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추진정책이 종합건설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대책(2010. 9. 29)」을 수립하고 지난 12월 8일 공공부문의 동반성장 추진대책 확정
  -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해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 전면 시행, 최저가낙찰공사의 내실있는 저가심의로 과도한 저가낙찰 방지 추진, 공공공사의 대형업체 도급하한금액 상향 등은 중소건설업체 수주에 긍정적인 효과 예상
  - 법령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분리발주 활성화는 종합중소건설업체 수주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줄 것으로 전망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시행하는 공기업의 확대는 부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

- 건설공사 계약제도에 있어서는 500억원 이상 공사에 의무규정으로 도입한 물량내역수정입찰제와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임의규정으로 도입한 순수내역입찰제도 시행에 따른 저가심의방안이 확정 시행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파급 영향도 상당히 클 것임.
  -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와 순수내역입찰제도의 시행은 공공공사 입찰방법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
  -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과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고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입찰참가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공사 리스크가 증가할 것임.
  - 발주기관도 기술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하고 동시에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입찰제도 한 단계 도약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의 최적가치낙찰제 시범도입 결과도 예의주시해야 할 사항임.
  - 최적가치낙찰제는 현행 공공건설공사 낙찰제도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새로운 낙찰제도로써, 공사의 효율성, 시공품질 향상, 무자격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지자체의 50억원 이상 공사에 임의규정으로 시행 예정이며, 주관적 심사요소 도입이 불가피해 중소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011년 말까지 시행될 시범적용 결과가 주목되고 있음.

## ■ 향후 검토되어야 할 과제

-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관련 계약법령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2011년 중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저가심의 문제점을 보완 시행하여 실효성 확보가 검증된 후 시행해야 하며, 확대되는 적용공사가 300억~100억원 공사로 중소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야 함.
- 물량내역수정입찰제의 집행에 우선 역량을 집중하여 시행 추이와 효과 여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순수내역입찰제도의 시행은 물량내역수정입찰제 정착 이후 다음 단계의 과제로 추진하는 공감대 형성 필요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경우, 공사 발주에 신중을 기하여 무분별한 확대 시행은 자체 해야 할 것임.

백영권(연구위원 · ykbaek@cerik.re.kr)

##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작년보다 둔화 예상

- 선진국과 개도국 동반 하락, 국내경제성장률은 작년 6%에서 4%로 조정 전망 -

### ■ 세계경제성장률 4.2%로 둔화될 듯, 작년 대비 0.6%p 하락

- 2010년 세계경제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회복세 지연으로 하반기에 성장률이 다소 둔화된 가운데 4.8%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미국의 경우 2010년 중반 이후 각종 경기부양책이 종료되면서 더블딥 우려와 함께 민간 내수 경기의 회복세가 약화, 2010년 2.6%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5월의 남유럽 재정문제로 유럽경제 회복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유럽 경제는 경제정책을 확장에서 긴축기조로 선회, 1.7% 성장 전망
- 2011년 세계경제는 회복세는 유지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성장세가 모두 둔화되어 4.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대부분 국가의 재정정책기조가 긴축 또는 건전화 모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미국의 경우 더블딥 가능성은 낮으나, 경기회복 모멘텀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2.3%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일본, 독일 또한 2010년보다 둔화되어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됨.
  - 유로지역은 재정취약 국가들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금융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높은 재정긴축 정책이 예상됨에 따라 성장률이 1.5%에 그칠 전망이다.
  -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의 경우 2010년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강한 인플레이 압력을 겪었음. 2011년에는 높은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자 정책적으로 경제 성장 속도를 조정, 결국 경제성장률이 0.9~0.7%p 정도 둔화될 것으로 보임.

<전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전년대비, %)

구분	2009	2010	2011
미국	-2.6	2.6 (3.1)	2.3 (2.6)
일본	-5.2	2.8 (1.9)	1.5 (2.0)
독일	-4.7	3.3 (1.2)	2.0 (1.7)
중국	9.1	10.5 (10.0)	9.6 (9.9)
인도	5.7	9.7 (8.8)	8.4 (8.4)
유로지역	-4.1	1.7 (1.0)	1.5 (1.5)
세계	-0.6	4.8 (4.2)	4.2 (4.3)

주 : IMF(2010.10), 괄호안의 수치는 지난 2010년 4월 발표한 수치임



■ 국내경제성장률 4%대로 둔화될 듯, 작년 대비 2%p 하락

- 2010년도에 빠른 상승률을 기록한 국내경제는 2011년 들어 세계경제와 동조화하는 움직임이 보일 것으로 예상
  - 국내경제의 경우 2010년 하반기 들어 회복 과정에서 나타났던 반등효과, 경기부양 효과 등이 사라지면서 성장세가 조정을 받고 있음.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경제의 대외의존성이 더욱 높아져 향후 국내경기의 향방은 세계경기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임.
- 2011년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 두 자릿수에서 한자리 수로 둔화될 전망
  - 2011년에는 세계경제 성장속도 둔화로 대외수요 증가세가 완화되고 원화가치도 2010년보다 높아져 수출 증가세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설비투자의 경우 경기 침체시 미뤘던 투자가 집행되어 2010년 20% 이상 증가했으나, 2011년에는 장기평균치로 수렴하여 결국 5~8%대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다.

■ 2011년 국내경제 성장 上底下高, 금리 인상은 하반기에 완만하게 이뤄질 듯

- 2011년 국내경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금리상승 압력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임.
  - 현재 대외적으로 경기상승세가 둔화되고 대내적으로 주택경기 부진, 가계부채 확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등 당분간은 불안 요인이 높은 상황임.
  - 정부는 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되 경기회복력 및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긴축 전략의 강도를 조정,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완만히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됨.

<국내 연구기관 및 정부가 발표한 국내 GDP 전망치>

기관	연도	GDP	민간 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수출	수입	소비자 물가	실업률
KDI (11월 22일)	2010	6.2	4.4	-1.4	25.6	14.5	18.9	2.9	3.8
	2011	4.2	4.1	3.4	8.6	12.8	15.1	3.2	3.6
한국은행 (12월 10일)	2010	6.1	4.2	-1.5	24.3	16.1	20.3	2.9	3.8
	2011	4.5	4.1	1.4	6.5	9.6	10.1	3.5	3.4
삼성경제연구원 (12월 24일)	2010	5.9	4.1	-0.4	23.9	25.9	31.2	2.9	3.8
	2011	3.8	3.6	1.6	5.1	9.0	13.7	2.8	3.5
LG경제연구원 (12월 22일)	2010	6.1	4.4	-1.3	22.8	27.4	30.9	2.9	3.8
	2011	4.1	3.9	0.5	5.2	9.7	14.4	3.1	3.7

박철안(연구원 · igata99@cerik.re.kr)

■ 주요 정부 부처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세미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2.27	지식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 관련 정책간담회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li> <li>- 전기공사의 하도급 실태에 대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자문</li> </ul>
12.29	강남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복지시설 기본계획 자문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석</li> <li>- 세곡동 어르신행복타운 기본계획 및 노인전문병원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 보고서 자문</li> </ul>
	지식경제부/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기술평가원이 공동 주최한 2011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기획과제 착수 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이복남 연구위원 참여</li> <li>- 데이터 기반 원전 건설체계 통합화/자동화 기술개발 기획과제에 대한 자문</li> </ul>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사업 평가 TFT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li> <li>-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li> </ul>

■ 2011년 추진 연구과제 확정 및 2011년도 1~2월 연구과제 발령

- 기본과제 7건, 현안과제 27건 등 총 34건의 2011년도 추진 연구과제를 확정하고, 1~2월 착수 연구과제를 발령하였음.
- 1~2월 착수 주요 연구과제
  - (기본과제) 건설경기동향조사 및 전망 연구
  - (기본과제) 건설산업 생산방식 변천 과정과 향후 정책과제
  - (현안과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정보화 수준과 BIM
  - (현안과제) 국내 건설시장 중장기 전망( I ) / 주택시장
  - (현안과제) 순수내역입찰 및 내역수정방식 도입의 건설업 파급효과와 대응 방안
  - (현안과제) 주요 선진국의 건설산업 구조변화 비교 연구
  - (현안과제) 경기변동에 따른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 등

■ 연구원 종무식 개최

- 연구원은 12.31(금) 오전 11시, 건설회관 9층 연수실에서 2010년도 종무식 개최
  - 이번 종무식에서는 우수 연구 결과물과 연구 및 사업성과가 뛰어난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이 있었음.

## “능동적으로 가치창조하는 건설산업이기를...”

희망찬 신묘년(辛卯年)의 새해가 밝았다. 어려웠던 한 해를 뒤로 하고, 새해는 작년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말한다. 건설산업의 큰 장이 펼쳐지는 장밋빛 미래도 꿈꿔보고 싶다.

지난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하였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분단국의 현실을 다시금 실감했으며,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도모하고 환경과 생태가 살아 숨 쉬는 명품 하천으로 거듭나게 할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 차이, 특히나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제안된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갈등도 적지 않았다. 희망을 안겨준 성과도 많았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의 선전, 신흥국 처음으로 성공 개최한 G20 정상회의 등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주었으며, 미국, EU와의 자유무역협정은 한국 무역 환경의 미래를 밝게 하였다.

건설산업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해외시장에서는 연초부터 UAE 원전 수주라는 쾌거를 올렸으며, 역대 최고 수주액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내 건설시장은 수년째 부진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증액되었던 공공 토목공사 발주가 다시 축소되고, 민간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SOC 예산은 감소하고 예상되는 건설투자 증가율 역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부동산시장의 회복도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수주물량 부족과 시장 불확실성 등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데 있다. 길게 보아도 SOC 예산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인구구조 변화로 주택부동산도 공급만 하면 팔리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건설산업도 이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만 한다.

능동적인 가치창조 산업으로의 변모가 그 해법의 하나일 것이다. 과거에는 수요가 있는 입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수요를 창출하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때이다. 블루 오션을 찾는데 만족하지 말고 블루 오션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도로 건설은 한 풀 꺾이고 친환경 철도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지만 녹색도로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큰 시장이 열려있는 것이다. 해외건설에서도 신도시, 원전, 고속철도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 제안하면서 수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한 차원 높은 도약을 가능케 할 것이다.

건설산업이야말로 지난 세기 국가경제 성장의 진정한 견인차 아니었는가. 녹색건설 등 신성장동력 발굴, 신상품을 통한 주택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적극 추진해나간다면 국내 건설시장은 틀림없이 회복될 수 있다. 아울러 성실한 시공과 윤리경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건설산업이 다시 국가경제 성장의 토대를 창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준비된 산업, 혁신하는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신묘년은 토끼처럼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부단히 정진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건설산업이 더욱 번창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흥수(원장 · infra@cerik.re.kr)